10. 사람을 잘 대해라

열째는 사람을 응대함이니, 배우는 자가 이미 가정을 바로잡고 나서는 남을 대할 때 한결같이 예의를 준수해야 한다. 어른을 공손히 섬기되 침식과 보행[17]을 모두 어른보다 뒤에 하고, 나이가 열 살 이상이면 형으로 섬기고 갑절 이상이면 더욱 공손하게 대우한다.

어린이는 자애[18]로써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친족에게는 돈독하고 화목하며, 이웃을 사귀는 데도 그들의 환심[19]을 얻어야 하고, 항상 덕과 학업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은 서로 바로잡고, 혼인 장례 때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 언제나 남을 구해 주고, 항상 남을 이롭게 할 생각을 가져야 하며 남을 해치거나 사물을 해롭게 하는 생각은 털끝만치라도 마음에 머물러 두지 말아야 한다.

---

17 보행(步行): 걸음걸이
18 자애(慈愛): 자상하고 사랑함
19 환심(歡心): 좋아하는 마음

해설

"조선은 노인 천국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100년 전 한말에 조선팔도 방방곡곡을 누볐던 선교사 게일이 한 말입니다.

제임스 S. 게일은 1888년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조선에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당시 정동에 모여 살면서 좀처럼 그곳을 벗어나지 않던 대부분의 외국인과 달리 그는 조선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게일은 부산에서부터 서울, 평양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조선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조선인들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게일이 1888년부터 1897년까지 10년의 시간을 담은 기록을 『Korean Sketches』라는 제목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서방 세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한 최초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게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 시절 조선 사람들의 진상을 알려줍니다. 몰락하는 양반들 이야기, 보이라고 불리는 선교사나 외국인들을 도와주었던 집사들 이야기, 상놈이라고 불린 천민들 이야기는 조선에 대한 게일의 애정과 놀라운 관찰력이 빚어낸 훌륭한 사료입니다.

게일은 1890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출간했고, 우리 고전과 조상들의 저서를 읽고 번역할 정도로 우리말에 능통했습니다. 『구운몽』, 『심청전』, 『춘향전』 등을 영문으로 번역해 서양에 소개했고, 『텬로력뎡(천로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20세 연상을 부모뻘인 존자(尊資), 10세 연상을 형님뻘인 장자(長子), 나와 연상 연하 10세 미만을 적자(敵者), 10세 연하를 아우뻘인 소자(少者), 20세 연하를 아들뻘의 유자(幼者)로 구분하였습니다.

연령에 따른 공경의 등급이 엄격하여 감히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자가 나들이 할 때면 찾아가 인사하는 사(辭), 돌아오면 가뵙는 견(見), 경사가 있으면 가서 경하하는 하(賀), 음식을 하사해 주면 감사하는 사(謝)는 기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만나면 존자일 경우는 지나갈 때까지 허리 굽히고, 장자일 경우는 두 손 모아 읍(揖)을 했습니다. 햇곡식이나 새 과일을 거두면 맨 먼저 존자에게 갔다 바치고, 추렴해서 돼지를 잡더라도 내장은 그 마을 회갑지난 존자 몫이었습니다.

율곡이 어른을 공손히 섬기되 식사를 하거나 잠자리에 들거나 걸을 적에 모두 어른보다 뒤에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논어』, 『맹자』에 나온 어른을 공경하는 행실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악행 중 가장 나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잔혹한 연쇄 살인인

가요? 죄질이 나쁜 어린이 유괴 살인인가요? 오늘날 법정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수록 악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통 사회에서는 불효를 악행 중 악행으로 쳤습니다. 사회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에게 하는 공경입니다. 집 밖에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듯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공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면 공손해라."(『공자』 1:6)

유학의 윤리관은 자신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윤리 모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라는 주체가 성립하려면 우선 생물학적인 몸,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손발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모든 행동은 마음의 명령을 받습니다.

마음은 늘 작동합니다. 의식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의식 활동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국어사전에서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인지, 정서, 판단, 행동을 포괄하지만 인지적 측면이 중심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헤아리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이루어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론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개체로부터 관계망이 확대됩니다. 가족으로, 국가로 세

계로 뻗어갑니다. 관계망을 통해 나의 행위는 그 영역이 확대됩니다.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대학』에 나오는 8조목인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통시대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으로 이루어진 사서 중에서 『대학』을 제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대학』을 통해서 학문의 규모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기치인의 틀이 『대학』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마을의 어른을 잘 섬길 것이고, 우애하는 사람은 동네 형님들에게 우애 있게 할 것입니다. 유자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면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할 자가 적습니다.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기니 효성과 우애는 인을 행하는 근본인 것 같습니다."(『논어』 1:2)

『대학』의 8조목으로 견주어보면 어른, 연장자, 연소자를 대하는 논의는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사회로 확대된 치국에 해당합니다. 바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그 집을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을 가르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자는 집밖에 나가지 않고서도 나라에서 가르침을 이룹니다. 효도는 임금을 섬기는 근거가 되고, 공손은 어른을 섬기는 근거가 되고, 자애는 무리를 부리는

근거가 됩니다."(『대학』 10:1)

집안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 동생이 형에게 하는 공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자애의 마음이 자기 집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사회로 퍼지면 임금, 어른, 무리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 집을 가지런하게 해야 하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려면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잘 닦은 사람은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공자의 핵심은 인(仁) 한 글자에 담겨있습니다. 맹자의 핵심은 인의(仁義) 두 글자에 담겨있습니다. 인은 사랑이라고 하고, 의는 정의라고 해석합니다. 인과 의는 상보적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의를 해치고 일방적 의는 사랑을 해칩니다. 사랑과 정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과 의를 개인과 사회의 원리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인은 가정의 사랑으로, 의를 사회의 정의로 풀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인한 사람이 부모를 버리거나 의로운 사람이 임금을 뒤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맹자』 1:1) "인의 본질은 부모를 섬기는 효도에 있고 의의 본질은 형을 따르는 공손에 있습니다."(『맹자』 7:27) "부모를 친애하는 것은 인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의입니다."(『맹자』 13:15) 등입니다.

율곡은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합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면 다른 가정도 소중합니다. 뒤집어서 남을 소중하게 대접해야 나도 소중하게 대접받고, 다른 가정을 소중하게 대해야 나의 가정도 소중하게 대접받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입니다.

프랑스 형법의 제63조 제2항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5천 프랑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어느 바리새인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예수가 율법사에게 율법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되묻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예수가 그렇다! 하면서 네가 가서 그대로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답변해 줍니다.

율법사가 예수의 답변을 듣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율법사는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기에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존중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늘 비판했습니다. 이 율법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당신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시오."(『누가복음 10:25-37)

바리새파 율법학자는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을 베풀만한 진정한 이웃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진정

한 이웃이 되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지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진정한 사랑을 베풀라. 예수의 대답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이 앗수르(아시리아)에 정복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리아는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죽이거나 추방하고 외국인들을 불러 그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그곳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인들과 통혼해 혼혈인을 낳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외국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의 옛 수도인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시대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이미 수백 년 동안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지역은 북쪽의 갈릴리, 중앙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 있었다.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한 탓에 사마리아 지역을 멀리 우회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침을 뱉었습니다.

제사장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지도층 인사가 바로 이들입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로 역시 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나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혐오했고 결코 그들이 선하다고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고,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경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율곡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귀는 데 그들의 환심을 얻어야 하고, 항상 덕과 학업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은 서로 바로잡고, 혼인 장례 때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 언제나 남을 구해 주고, 항상 남을 이롭게 할 생각을 가져야 하며 남을 해치거나 사물을 해롭게 하는 생각은 털끝만치라도 마음에 머물러 두지 말아야 한다."

이웃의 환심을 산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행으로는 환심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웃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좋은 이웃이 됩니다.

율곡의 말처럼 항상 남을 이롭게 할 생각을 가져야 하며 남을 해치거나 사물을 해롭게 하는 생각은 털끝만치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學者旣正其家, 則推以接人, 一遵禮義.
학 자 기 정 기 가 칙 추 이 접 인 일 준 예 의

事長以弟, 如寢食行步, 皆後長者, 十年以長,
사 장 이 제 여 침 식 행 보 개 후 장 자 십 년 이 장

則以兄事之, 年長以培, 則待之益恭. 撫幼以慈.
칙 이 형 사 지 년 장 이 배 칙 대 지 익 공 무 유 이 자

배우는 자가 이미 가정을 바로잡고 나서는 남을 대할 때 한결같이 예의를 준수해야 한다. 어른을 공손히 섬기되 침식과 보행을 모두 어른보다 뒤에 하고, 나이가 열 살 이상이면 형으로 섬기고 갑절 이상이면 더욱 공손하게 대우한다. 어린이는 자애로써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學者: 배우는 사람/旣: 이미, 旣~則: 이미 ~했다면/正: 바르게 하다/其: 그/家: 집안/則: ~면/推: 미루다, 확대하다/以: ~써/接人: 남을 응접하다/一: 한결같이/遵: 준수하다/禮義: 예의/事長: 어른을 섬기다/以弟: 공손함으로써/如: 가령, 이를테면/寢食行步: 자고 먹고 걷고/皆: 모두/後: 뒤로 하다, 나중에 하다/長者: 어른/十年以長: 10살 이상 나이가 많다/以兄: 형으로/事之: 그를 섬긴다/年長以倍: 두 배로 나이가 많다/待之: 그를 대우하다/益恭: 더욱 공손하다/撫幼以慈: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다.

至於睦族交鄰, 無不得其歡心, 每以德業相勸,
지 어 목 족 교 린 무 부 득 기 환 심 매 이 덕 업 상 권

過失相規, 禮俗相成, 患難相恤. 常懷濟人利物之心,
과 실 상 규 예 속 상 성 환 난 상 휼 상 회 제 인 이 물 지 심

若傷人害物底意思, 則不可一毫留於心曲.
약 상 인 해 물 저 의 사 칙 불 가 일 호 류 어 심

친족에게는 돈독하고 화목하며, 이웃을 사귀는 데도 그들의 환심을 얻어야 하고, 항상 덕과 학업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은 서로 바로잡으며, 혼인 장례 때는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 언제나 남을 구해 주고, 항상 남을 이롭게 할 생각을 가져야 하며 남을 해치거나 사물을 해롭게 하는 생각은 털끝만치라도 마음에 머물러 두지 말아야 한다.

至於: ~에 대하여/睦族: 친족에게 화복하게 하다/交鄰: 이웃을 사귀다/無不: ~하지 않음이 없다/得: 얻다/其: 그/歡心: 환심, 좋아하는 마음/每: 매양, 늘/以: ~써/德業: 덕이 되는 일/相勸: 서로 권장하다/過失: 과실, 허물, 실수/相規: 서로 바로잡다/禮俗: 예의 풍속, 관혼상제 등/相成: 서로 도와 잘 마칠 수 있도록 한다/患難: 환난, 어려움/相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다/常懷: 항상 가슴에 품다/濟人: 남을 구제하다, 남을 도와주다/利物: 사물을 이롭게 하다/之: ~의/心: 마음/若: 만약, 이를테면/若~則: ~를 말할 것 같으면/傷人: 남을 해치다/害物: 일을 해치다/意思: 생각, 의도/則: ~면/不可: ~해서는 안 된다/一毫: 한 터럭이라도, 조금이라도/留: 남기다/於:~에 /心曲: 마음